

2017 년 10 월 22 일 주일설교
와싱턴 한인교회 김한성 목사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성공입니까?’
‘For what, and for whom, do you want to succeed?’
창세기 Genesis 50:15-21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 하셨습니까? 요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지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Dear beloved church members of KUMCGW! Have you had a peaceful week in God's embrace? These days I realize again how precious the peace that God has given to us is. I know you all worked very hard past week. I commend you on your hard work and efforts.

새벽부터 온 종일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이되고 한이되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야곱처럼 씨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영혼의 아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외롭게 혼자 울고 계십니다. 왜 난 이것 밖에 안되나, 한없이 작아 보이는 내 모습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Some church members work hard all day from dawn to the point of almost collapsing. Some pray like Jacob did, seeking answers for difficult prayer topics. Some agonize due to physical weakness or spiritual pain. Some just weep by themselves out of despair and hopelessness. Some feel inferior and are disappointed in themselves for their meager achievements.

지난 주간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 주세요.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딸/아들로 당당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의 삶의 한 복판에 찾아와 주셔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정, 저희 일터, 저희 공동체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Past week I repeatedly prayed for the church members who are tired and exhausted: ‘Lord, please call each one of our church members by his or her name. Please let them stand up as Your child no matter what circumstances they are under. Oh, Lord, visit them in the middle of their lives, and let them cherish the true peace you have given them. Oh, Holy Spirit, protect and lead our families, our businesses, and our community!’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똑같은 처방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의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평안이 꼭 필요합니다.

We may be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but we all need the same prescription. What we really need is God's amazing peace that is distinct from the worldly peace.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조건이, 단서가 달라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이런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은 늘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지요.

The peace the world gives always has a string attached. It makes us feel that we are at peace only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is is why the worldly peace always makes us thirstier.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향해 돌진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를 퍼마시면서, '커 시원하다' 착각합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점점 더 심한 갈증/현기증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좀 더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성공은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짠물을 벌걱벌걱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더 우리 입술은 바싹바싹 메말라 갑니다. 점점 더 성공이라는 신기루의 노예가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더 많이 쌓인다고, 돈에서 더 자유로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행복과 평안은 본질적으로 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t this very moment many people in the world are chasing a mirage called 'success.' They think they can quench their thirst by drinking a cup of sand in the middle of a desert. But the truth is, we feel dizzy and thirstier as we climb the ladder of success. We may make more money than others. We may have achieved more prestigious positions than others. But the problem is, the worldly success is like drinking salt water. The more we drink salt water, the more our lips dry up. We become slaves to a mirage called success. Being recognized at your workplace or getting promoted does not bring happiness. Nor does more money in your bank account liberate you from money. Do you know why? It is because worldly happiness and peace are essentially like salt water.

'목사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면 안 됩니까?' 분명한 답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정말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맘껏 성공/출세 하십시오. 각 분야에서 최고의 리더 자리에 오르십시오.

"Then, Pastor, do you mean Christians shouldn't be successful?" Let me give you a clear answer. Please live fiercely with all your best effort, be successful, and be the best in your respective fields.

저는 저희 공동체에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음악가들이 배출되길 원합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크리스찬 실업가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학자들, 억눌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맘껏 돕는 변호사도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I hope to see top notch scientists from our church. I hope to see virtuoso musicians from the church. I hope to see legendary Christian businessmen, world-renowned scholars,

and lawyers helping the needy and the weak. But beloved church members, please don't forget this:

무엇을 위한 성공입니까? 또 누구를 위한 성공입니까?

For what do you want to succeed? And for whom?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시사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은 꼭 나눠야될 것 같습니다. 몇해 전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지요. 플로리다의 한 목사님이 9.11 9 주기를 맞아 코란을 불태우겠다는 겁니다. 물론 다행히 불발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크리스찬의 기본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목표만을 관철하려 듭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코란을 불지르겠다고 협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성공'한 것입니까?

I don't like talking about politics or current news in my sermon. But I want to share this with you. A few years ago, a pastor in Florida attracted people's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by announcing that he would burn a Koran on the 9th anniversary of 9/11. Luckily he did not carry it through, but this incident makes us think about so many things. I couldn't find the Christian love and forgiveness in him. He wanted to achieve his goal by any means necessary. It saddens me that he wanted to attract people's attentions using such worldly tactics. Is it really a 'success' if he achieves his goal by threatening to burn a Koran?

저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실 성경전체를 통해서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도 참 드뭅니다. 창세기 기자는 요셉을 무척이나 비중있게 조명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천지 창조라면,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 장부터 마지막 장 50 장까지, 거의 삼분의 일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등장부터 화려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합니다. 형들을 모두 제치고, 혼자서 화려한 색동옷을 입습니다. 요셉은 또 꿈의 사람입니다. 수시로 꿈을 통해 미래의 일들을 미리 봤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요셉은 출생부터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시절의 삶을 곰곰히 살펴보세요. 사실 **성공 같지만 실패의 삶**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늦둥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시기/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7:4-5) 어린 요셉은 야곱의 든든한 그늘 아래 살았던 철부지였습니다. 혼자만 예쁜 까까옷 입고, 야곱의 무릎을 자기 방석처럼 여기로 살았습니다.

I would like us to consider what true success means by examining the life of Joseph. In the entire bible, there is no one who lived a life more dramatic than Joseph. Genesis describes his life in detail. If the beginning of Genesis deals with the creation, its end details the story of Joseph. From Chapter 37 to Chapter 50, almost a third of Genesis is about Joseph. Even from the beginning, Joseph's life is spectacular. He is the favored son of Jacob, our ancestor in the faith. He alone of his siblings wore a coat of many colors. Joseph also had dreams. He frequently saw the future in his dreams. According to our definition of success, Joseph seemed to have it all from the beginning. However,

if you carefully examine his life, **with all his seeming success, his life was actually a failure**. Joseph's brothers were full of jealousy towards Joseph who was born when their father was old. They hated him even more when Joseph had a dream and told it to his brothers (Genesis 37:4-5). Young Joseph was a spoiled child sheltered by his father's deep love. He wore a coat of many colors and sat on his father's lap.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편애 당하는 형들 입장은 전혀 모릅니다. 물론 나이가 어렸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서슴없이 자기 꿈 이야기를 늘어 놓습니다. "아빠, 엄마, 형아들, 내 말 좀 들어봐. 어젯밤에 꿈을 꿴는데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꾸벅 절을 하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꿈과 환상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요? 듣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환상과 예언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죄와 판단이 됩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제 하늘에 닿았습니다.

He did not know how his brothers felt about him, or had any consideration for their feelings. Of course, this was probably because of his young age. Now, without hesitation he tells them about his dream. "Father, mother, brothers, listen to the dream I had. The sun and the moon and 11 stars were bowing down to me." What does this tell us? Your dreams and visions can be pain to those around you. When? It is when you have no love or affection for those who are listening to you. It is the same when you share visions or prophecies. Without love, they become condemnation and judgment. Joseph's brothers' jealousy and hatred toward him had come to a head.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하는지라. (창세기 37:19-20)

"Here comes that dreamer!" they said to each other. "Come now, let's kill him and throw him into one of these cisterns and say that a ferocious animal devoured him. Then we'll see what comes of his dreams." (Genesis 37:19-20)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어린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즘은 조기유학이 유행인데, 그야말로 '조기 종살이' 떠나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성공을 향한 시작입니다. 조기 종살이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조기유학 입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한 본격적이 수업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친위대장의 보디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라는 든든한 그늘을 벗어난 요셉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Joseph barely escaped with his life and was sold as a slave to Egypt. These days, it is a trend for Korean parents to send their kids to study abroad at early ages. In comparison, Joseph experienced 'slavery abroad' at an early age. From our mortal viewpoint, this is far from a successful life. However, though he was sold into slavery at this young age, it actually turned out to be a study abroad. His lessons to eventually become the prime minister of Egypt had just begun. He came to live in the house of Potiphar, captain of the guard. It may seem like a coincidence, but there is no mistake in God's plans. Having left the shelter of his father Jacob, Joseph now relies solely on God.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창세기 39:3)

“When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and that the Lord gave him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Genesis 39:3)

청년 요셉은 이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합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 요셉의 땀과 눈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주인의 신임을 얻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등뼈가 휘게,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종들이 다 쿨쿨 자고 있는 이른 새벽에 일어났겠지요. 밤이 맞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껏 살폈을 겁니다. 그런다고 월급 한 푼 더 받는 것도 아닐텐데 정말 앞만 보고 달렸을 겁니다. 나름 그 집 노예로서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가정 총무. 얼마나 주인이 요셉을 믿었으면, 모든 열쇠를 통째로 맡겼겠습니까? 분명 노예로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성공의 사닥다리 꼭대기에 올라 갔습니다.

Potiphar put young Joseph in charge of his household and entrusted to his care everything he owned. From this short verse, we can imagine the effort Joseph put forth and the sorrows he faced. How hard and diligently he must have worked to earn the trust of his owner, as a foreigner who could not even speak the language! He probably woke early in the morning when the other slaves were still sleeping, and kept at his housework late into the night. It's not as if he were able to receive a salary, yet he kept at it. He was able to achieve the highest level of success possible as a slave in that household, becoming a house steward. The owner must have trusted Joseph mightily to hand him all the keys to the house. Certainly, as a slave Joseph had reached the top of the ladder of success.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 크게, 더 높이 들어 쓰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맘껏 사용하시기 위해, 요셉을 또 다시 차가운 감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줄기 햇볕도 들지 않는 캄캄한 골방에 던져졌습니다. 잘 보세요. 가정 총무로 명명 거렸습니다. 성공같지만 사실은 실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처음 오셔서 자리 잡으시려고, 투 잡, 쓰리 잡 뛰십니다. 경제적으로 좀 안정 됐지만, 젊음을 다 바치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인정 받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 집니다. 좋은 논문 쓰려고, 긴 밤을 하얗게 지새웁니다. 그런데 원하는 결과는 잘 나오지 않고, 불안과 초조만 가득합니다. 앞만보고 달리는 인생입니다. 앞만보고 달릴 때 무리하고, 실수합니다. 아무리 고급차를 몰면 뭐합니까?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것은 무덤을 향한 질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같아 보이는 요셉의 삶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감옥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청년 요셉의 눈앞에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But that was not the end of God's plan. He had bigger things in plan for Joseph. In order for God to use Joseph to his full potential, God put him in prison. Joseph was wrongly accused and put in a prison cell with no light. Look carefully. He had become a house steward. It looked like success, but it was failure. Why is that so? Because he was running toward the future without looking back. When some people come to America, they juggle two or three jobs in order to obtain financial stability. They may have achieved financial security, but in the process they sacrifice their youth and health. In

our jobs, we work extremely hard to get recognition. The more we climb the career ladder, the more competitive it becomes. Some people spend many sleepless nights trying to write notable dissertations. But things don't turn out the way we want, leaving us anxious and fretful. It is a life of looking ahead only. When we focus only on what lies ahead of us, we become overwhelmed and make mistakes. What is the use of driving a luxury car? If you don't have brakes, you will drive yourself straight into the grave. God intervened in Joseph's seemingly successful life once more. He sent Joseph to 'prison school.' Young Joseph's past life flashed before his eyes.

자, 뒤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껏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 오셨다면, 조용히 지나온 길을 바라 보십시오.

Now is the time to look back on life. If you have been so busy running towards the future, take some time to contemplate and look back on your life.

중요한 성공의 비결을 말씀 드립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비약 하시려면, 반드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왜 잘나가던 요셉에게 감옥학교가 꼭 필요했습니까?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한 평 남짓한 좁은 공간입니다. 단순한 삶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선 것 처럼 적막한 곳입니다. 지나간 삶을 곱씹어 볼수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감옥학교가 아닙니까? 뜻하시던 것, 계획하시던 일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려 합니까? Why me?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으십니까? Welcome to 감옥학교, 감옥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Let me tell you the secret to success. If you want to fly higher, you must reexamine and correct. Why was 'prison school' so necessary to Joseph? What kind of place is prison? A prison cell is a small space that is barely 36 sq. ft. Life in prison is plain. It is a desolate place where time slows to a crawl. It is a good school to reflect on one's past life. By any chance, are you in 'prison school' now? Has someone put the brakes on your plans? Have you not been able to achieve what you intended? Are you bursting with feelings of disgruntlement and malcontent? Do you want to complain, "Why me? Why is this happening to me, God?" Welcome to 'prison school.' We are happy to have you.

만약 요셉이 신세한탄이나 하고, 잘 나가는 술 말은 관원이나 부러워하고, 하루 하루 마지 못해 목숨이나 연명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요셉이 누군지도 몰랐을 겁니다.

What would have happened if Joseph just dwelt on his misfortune, envied the cupbearer's luck, and just let each day slide by grudgingly? Then, we probably wouldn't know who Joseph was.

요셉은 뒤를 돌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위를 쳐다 봤습니다.

Joseph not only looked back upon his life, but also looked up at the same time.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디서요? 감옥학교 안에서요. 여러분의 앞길이 막혔습니까? 함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시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가정 총무가 아니라 총리 대신입니다. 감옥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잘 통과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만 보고 과정을 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세계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감옥학교 안에서 요셉이 총리가 될 만큼 넉넉하게 큰 그릇으로 변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구하기 전에, 축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인지 생각해 봅시다. 지저분한, 준비되지 못한 그릇, 쪼그만 쪽박 들고 소나기 축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He looked up and sought for the faithful God. He met the almighty God again. Where? In the prison. Do you see a dead end ahead of you? Let us be thankful together. It is time to meet God. It is time for God to enter into our lives. Joseph got out from the prison. He was no longer in charge of just a household but was in charge of Egypt now. When someone graduates from 'prison school' with honors, a whole new world awaits. Many people only see the result and not the process. Joseph became to be in charge of Egypt not because he was unbelievably lucky. In the prison, Joseph was transformed to become a vessel that is large enough to be the prime minister. Let us examine whether we are prepared with a big vessel that is big enough to receive God's great blessing before we ask for one. Are we asking God to pour out God's great blessing as we hold onto a dirty, unprepared, and small bowl in our hand? Let us go back to our initial question again: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성공하려 하십니까?

Why, and for whom, do you want to succeed?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늘 성공 같아 보이는 실패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답을 알고 있다면, 실패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늘 나라를 위해 성공 하십시오, 이웃을 위해 성공 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섬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 우리 이웃들과 선교지들이 더욱 풍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If you cannot answer this question, your life will end up being a failure even if it may look like a success. On the other hand, if you know the exact answer, you will live a truly successful life even if it may look like a failure. Succeed for the sake of the heavenly kingdom. Succeed for the sake of your neighbor. I bless you to serve God more enthusiastically through your success. I bless you so that our neighbors and mission fields prosper through your success.

오늘 본문은 진정한 축복이 뭔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 줍니다. 아버지 야곱을 장사지내고, 형들이 사시나무 처럼 떨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예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든든한 장막이었다면, 이집트에서는 형들에게 장막이 됐지요. 요셉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 요셉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형제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목이 맵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학교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이제 아버지도 안계신 마당에 한 칼에 철천지 원수를 처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진정한 성공의 사람입니다.

Today's scripture tells us eloquently what a true blessing is. After the burial of their father Jacob, Joseph's brothers began to tremble like a leaf. I found an interesting irony in this scene. Jacob served as a strong protector to Joseph in the past, but in Egypt, he was a strong protector to Joseph's brothers. The brothers threw themselves down before Joseph, and pleaded with tears, saying, "We are your slaves." At that moment, Joseph was blurred with tears, and choked with emotion for the passionate love for his brothers. If Joseph did not go through the time in the prison, he might have purged his bitter enemies instantly, as their father was no longer there to protect Joseph's brothers. Joseph was a truly successful person.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창세기 50:19-21)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So then, don't be afraid.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he reassured them and spoke kindly to them. (Genesis 50:19-21)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 보았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This scripture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Joseph looked up to see God.** ‘Am I in the place of God?’

둘째, 요셉은 눈을 돌려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우리 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정신 없이 나, 내 가족,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감옥학교를 믿음과 인내로 잘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맘껏 들어 쓰실 수 있는 큰 믿음, 큰 그릇이 되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주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Second, Joseph then looked around at his brothers. Instead of taking revenge, he reassured his brothers and spoke kindly to them. Here lies the true success. It is not just looking ahead; it is looking up high above. It is not being blinded by thinking only about myself, my family, or my church. It is loving our neighbors, as well as other churches and mission fields with a passionate heart. Dear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be conduits of blessings. Pass the ‘prison school’ with faith and perseverance. Be a person of great faith and great vessel so that God can use you anytime and anywhere. I pray that you have a successful and blessed week in the Lord.